

# 신선도·가성비 ‘갑’... 동네가게, 다시 뜬다

### 과일·육류·채소 저렴하고 배달·공동구매도 가능해 알뜰족에 인기 주택가·아파트 단지 2년새 100곳 증가... 경쟁 취약해 창업시 주의 필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사는 주부 정유나(여·32)씨는 최근 대형마트 대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정육점을 자주 찾는다. 단골집인 정육점에는 육류는 물론, 과일도 함께 팔고 있다.

‘워킹맘’인 그가 동네 정육점을 찾는 이유는 퇴근 후 대형마트를 들르기보다 집 앞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기 수월해서다. 더구나 조금씩 자주 살 수 있어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것보다 신선도를 유지하기도 좋다고 한다.

정씨는 “세 살배기 딸아이 이유식으로 한우 우둔살과 납편이 좋아하는 구이류를 자주 구매한다”며 “대형마트보다 고기와 과일이 신선해 애용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씨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어린 자녀와 남편 등 3인 가구인 탓에 대용량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제품을 이것저것 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동네가게를 찾게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대규모 식자재마트 위세에 자취를 감춰가던 ‘동네가게’가 다시 뜨고 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생기를 잃어가던 주택가 골목, 아파트단지 입구 상가에 속속 과일가게와 정육점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동네가게들은 불경기 속 과소비가 우려되는 대형마트를 기피하는 알뜰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골목상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불가능한 번거로운 요청사항을 소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트렌드가 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공동구매로 신선함과 가성비를 내세워 까다로운 ‘엄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14일 국제성의 국제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과일가게 사업자 수는 2019년 289개→2020년 302개(전년 대비 4.50%↑)→2021년 324개(7.28%↑)→2022년 355개(9.57%↑)로 매년 증가하는 데다, 전년 대비 증가율 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과일가게와 함께 최근 대표적인 동네가게로 떠오르는 정육점의 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정육점 541개→550개(1.66%↑)→570개(3.64%↑)→631개(10.70%↑)로 늘어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생선가게는 319개→343개(7.52%↑)→376개(9.62%↑)→393개(4.52%↑)로, 채소가게는 231개→263개(13.52%↑)→283개(7.60%↑)→313개(10.60%↑) 등 동네가게가 속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동네가게들은 SNS 채널을 활용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실제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과일가게는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일가게이지만 각종 채소류도 함께 팔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과 밀키트도 판매하고 있다. 이 과일가게는 SNS 채널에 상품 설명과 가격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 글을 올리자마자 구매 예약 댓글이 이어진다고 한다.

특히 동네가게들은 공동구매를 무기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공판장이나 농가에 과일 등 물건을 떼러 가기 전, 구매 희망자를 모집해 예약물량만큼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가게 주인들은 재고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처럼 동네가게가 활기를 잃어가던 동네상권을 되살리고 있지만, 관련 창업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실 동네가게는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아 ‘서민형 창업’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좁은 동네상권에서 경쟁업체가 늘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정육점.

박진석 (주)한국창업컨설팅 대표이사는 “코로나 19 사태를 비롯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초창기 창업 비용이 적은 서민형 창업, 불황형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네가게 역시 경기불황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동네 과일가게 최대의 적은 옆집 과일가게다. 경쟁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창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효성, 소방관 복지 증진금 3억원 기부

### 대한상의·현대차와 나눔프로젝트

효성이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의 복지 증진을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

효성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울산시 북부소방서에서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안효대 울산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효성의 기부금은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 장학금, 유가족 힐링캠프, 현직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소방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재난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화북버스 8대를 기증했다.

조현준 회장은 “최근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 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부분을 찾아 지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대한상의의 신기업가정신협회(ERT) 회원기업들이 함께 사회공헌활동 주제를 선정, 공동 실천하기로 한 연간 프로젝트다. 첫 시작은 효성과 현대차그룹이 주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정기총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호남지회(지회장 최갑렬)는 지난 13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임원 및 회원사 대표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는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제도 변화와 지역별 공급 동향 제공 등 회원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갑렬 지회장은 “지난해 경기침체와 주택미분양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원사와 부단한 소통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근거해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법정(위탁)업무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회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행운적금 이벤트’ 9월까지 연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행운적금 우대금리 이벤트’를 오는 9월 3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출시해 2개월 만에 2만좌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은 ‘행운적금’은 영입점 방문 없이도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매주 월요일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배정된 행운번호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당첨될 경우 1년제 정액적립식에 가입했을 시, 연 13.7%(자유적립식 연 13.4%)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애초 지난 12일까지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9월 8일까지 총 250개의 당첨계좌를 선정한 계획이다. 또 이벤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행운적금 소문내면 더 Dream’ 이벤트도 병행한다.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 및 모바일뱅킹에서 행운적금 현황판 하단의 ‘소문내고 행운번호 더 받기’ 버튼을 클릭해 지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공유하면 행운번호 4세트를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스마트뱅킹(APP), 영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연임

임경준(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이 연임한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열린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에서 참석 이사장 만장일치로 임경준 회장을 제10대 광주전남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으로부터 지역중소기업회장 위촉장을 받았다.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임 회장은 제7대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것에 이어 10대까지 회장직은 연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임기 동안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체 출범’, ‘광주 5개구 및 전남 5개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반영 등 성과를 이뤘다.

특히 제9대 지역중소기업 회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기업승계 세제개편 등 각종 중소기업에 현안에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임경준 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다”면서 “임기 동안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집중하고, 특히 지자체 및 산하기관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지역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신세계, 자체 한우 브랜드 론칭

‘신세계 암소 한우’ 선보여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자체 한우 브랜드를 론칭한다.

광주신세계는 배태량 축산 바이어가 직접 구매한 우수 한우를 ‘신세계 암소 한우’로 브랜드화해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신세계 암소 한우는 충북 음성 한우 공판장에서 바이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매입한다. 60개월 이하 한우 중 4번 이하로 출산한 암소를 선별하고 320~400kg 내의 개체를 취급해 지방 비율을 조절했다.

또 조리 직전까지 최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육색도 선분홍색의 상품만 고집하며 담백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의 색도 우유풀에 가까운 부위로만 엄선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신세계는 신세계 암소 한우의 비중을 전체 물량의 50% 수준인 매달 80두까지 확대한다.

신세계는 브랜드 론칭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



기로 했다. 매달 신세계 암소 한우가 입고하는 날을 ‘소 잡는 날’ ‘한우데이’ 등으로 이름붙여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암소 한우를 판매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

### 전남신보, 이달까지 참가자 모집...SNS·숏폼제작 등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은 등·서부 권역별로 네이버·SNS·숏폼제작 실습과정으로 구성돼 교육 수료 후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총 2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네이버’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남 서부권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이번 과정은 스마트플레이스 구축, 특색·스마트플 설정, 블로그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필수가 된 온라인 플

랫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다루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348.47 (-61.63) |
| ↓ 코스닥        | 758.05 (-30.84)  |
| ↓ 금리(국고채 3년) | 3.311 (-0.124)   |
| ↑ 환율(USD)    | 1311.10 (+9.30)  |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